

分類分委事業計劃에 對하여

分類分科 千 惠 鳳
委員長

1963年度 圖協事業의 하나로서 分類表 編纂事業이 計劃되고, 去般 擔當委員으로 서 金泰律, 尹炳泰, 任鍾淳 그리고 本人이 委囑되었다. 막상 委任을 받고 計劃을 짜보니 焦燥한 마음이 앞서는데, 加之하여 圖協編輯分委로부터 事業計劃을 月報에 發表해달라는 請託을 받으니 더욱 念慮가 된다. 그러나 一旦 맡겨진 일이므로 勇氣를 내어 시작할 道理밖에 없어서 이미 그 基礎作業에 着手는 하였으나, 워낙 어려운 事業인만큼 會員 여러분의 끊임없는 助言과 協助가 있어야만 成就될 것으로 믿는다.

本事業計劃을 紹介하기에 앞서 分類表 編纂이 圖協事業으로 採擇되기까지의 經由를 簡單히 살펴볼 必要가 있을것 같다. 들이켜보건데 圖協에서 最初로 分類表가 草案되었던 것은 1956年인 것으로 記憶된다. 그러나 主로 KDC와 NDC에 準據한 이 草案은 그 當時 우리나라에 導入되어 急速度로 普及되기 시작했던 DDC의 主用으로 말미암아 試用도 못해보고 廢棄되고 말았다. 後 1961年度에 다시 圖協技術委員會에서 分類表編纂事業이 討議된바 있었으나 實踐되지 못하고 次期事業으로 遷延되고 말았다. 1962年度에는 國立圖書館에서 KDC를 修訂增補한바 있었으나 이亦是 完成을 보지못하고 그해 겨울에 圖協事業으로 完成해줄 것을 依賴하여 왔다. 그리하여 同年 12月10日 全體技術委員會에서 正式案件으로 採擇하고 眞摯하

게 論議한바 1) KDC의 主類序列에 矛盾이 있는 곳을 本委員會가 變更할 수 있도록 全的으로 委任하는 條件下에 받아들인다. 2) 尤大한 分類表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 생긴 圖書館에 別로 도움이 없으므로 主類表修正을 삼가하고 修訂增補案의 細目的 展開만을 再檢討變更하여 時急한 要請에 應하는 것이 좋다. 3) 國立圖書館이 獨自의인 計劃에 따라 KDC를 修訂增補한 本來의 意圖가 KDC 그 自體의 固有한 獨特性을 살리려는데 있으므로 主類의 修正은 不可할 것이다. 그러므로 主類를 變更시키지 않고 다만 細目的 展開만을 再檢討變更한다는 條件이라면 차라리 國立圖書館에서 繼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特히 本分類表의 修訂增補를 委囑받은 분들이 大部分 本技術委員들이며, 그 方法論을 討議했던 最初會議席上에서 主類는 變更시키지 않기로 하고 이제와서 다시 主類를 變更하자는 것은 道理에 어긋나는 일이니 國立圖書館에서 完成하도록 協助해줌이 妥當하다는 세가지 案이나와 結論을 보지 못하고 結局 龍頭蛇尾의 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圖協事務局側로서는 分類表推薦을 頻繁히 要請하는 새로 發足된 圖書館들을 爲하여 63年度 主要事業의 하나로서 分類表의 編纂을 採擇하지 않을 수 없는 緊迫한 實情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後 分類表問題는 機會있을 때마다 非公式의인 討議席上에서 屢次 論議된바

있었으나 意見이 다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大體로 共通된 意見을 추려보면 現在 큰 圖書館의 거의 大部分이 東洋部分을 展開한 DDC를 使用하여 東西書를 主題別로 集中排列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教育과 講習이 그러한 方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點等을 參酌하면 새로히 發足되는 圖書館에 推薦할 수 있는 分類表도 現實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特히 새로히 생기는 圖書館中國民學校, 中高等學校圖書館(室)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므로 그네들이 圖書館(室)에서 習得한 知識과 얻은 經驗이 可能한 限 大學과 社會에 있어서 까지도 聯關性을 갖고 適用되도록 考慮하는 것이 좋겠다는 點에 對해서도 意見의 一致點을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胎動속에서 分類分委가 組織되고 2月12일에 第1次會議가 開催되었다. 이 會議席上에서 方法論이 具體的으로 討議되었는데 그中 主類問題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決議되었다.

KDC의 主類를 그대로 採擇하는 것은 不合理하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히 主類를 設定한다면 뚜렷한 論理的인 基礎위에서 展開되어야하므로 相當한 研究期間이 所要되며, 事務局에서 計劃한 今年度 事業의 完成을 期約하기 어렵다.

DDC의 主類는 EC(컬터의 展開分類表)나 LC(美國議會圖書館分類表)의 그것보다도 合理的인 것이 못된다는 評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確固한 土臺를 잡고 있는 現實을 參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DDC의 主類를 根據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于先 意見의 合致를 보았다. 그러나 이 問題도 主類를 그대로 採擇할 것

이나 或은 不合理한 主類序列의 一部 例컨데 400語學과 800文學, 300社會科學과 900 歷史와 같이 서로 分離된 것을 接近시킬 것인가에 對하여 論議한바 主類를 全的으로 새로 設定하는 것이 아니고 DDC의 主類를 따르는 原則이라면 多少의 矛盾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現實을 考慮하여 그대로 採擇하는 것이 좋겠다는 結論을 얻었다. 또한 事業全般에 對한 計劃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四段階로 나누어 實施하기로 決議하였다.

1. 基礎作業 2月12日~3月10日.

本表를 作成하기 앞서 綱(Division)·目(Section) 및 形式區分에 對하여 各委員이 다 같이 直接研究草案하고, 이것을 土臺로 約 10日間에 걸쳐 合同으로 檢討하여 다시 單一表를 作成하는 方法을 決議했다. 이것은 KDC 修訂增補案을 作成할 때의 失敗와 經驗을 土臺로 한 計劃으로, 말하자면 綱·目的 合理的인 展開와 區分의 均衡을 꾀하는 同時에 分擔委員間의 重複的인 일을 避하고 體系化된 作業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基礎作業에 利用할 參考資料로서는 DDC 및 各大學의 東洋部分 展開表, UDC, KDC 訂正增補案, NDC, 裘開明氏分類表, 成大古書分類表, 라몬트分類表, LC等을 擇하였다.

2. 本表作成 3月11日~8月31日

3月11일부터 7月31일까지 本表를 脫稿시킬 豫定이다. 그리고 細部的으로 編成된 計劃表에 따라 每月 1回式 그 進도를 報告하고, 本表作成상의 隘路 乃至 協議事項을 論議解決키로 하였다. 8月1일부터 8月31일까지 1個月間은 各委員이 한자리에 모여 本表를 綜合檢討하여 完成시킬 豫定이다.

3. 索引作成 9月1日~10月15日

分類表에 있어서 索引이 차지하는 比重이 큰은 새삼스러히 言及할 必要도 없지만 今年度事業으로서는 豫算의 制約을 받아 不得已 그 範圍를 最少限度로 縮少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基本의인 項目은 漏落시키지 않고 다 包括시킬 豫定이며, 萬一 豫算形便이 好調된다면 더 範圍를 넓힐 작정임을 添言해 둔다.

4. 印刷 10月16日~11月15日

本分類表는 하나의 案이므로 謄寫版으로 油印하기로 했으며, 校訂에 特別 留意

할 豫定이다.

以上은 分類分委事業 全般에 對한 概括이나 이의 같은 어려운 事業을 우리 分委의 能力만으로는 도저히 堪當해낼 수 없다. 各分擔委員은 專攻分野의 專門職에게 網別로 分割하여 다시 委囑 또는 細部的으로 諮問에 應하면서 作成하기로 했다. 積極의인 協力이 있기를 바라며, 直接 委囑이나 諮問을 要請받으시지 않은 분이라도 本事業促進에 參考 또는 도움이 될 事項이 있으면 서슴치마시고 連絡하여주시고 또한 懇切히 바란다.

調查統計分委事業計劃에 對하여

調查分科
委員長

朴 熙 永

1. 事業目的

圖協은 每年 全國圖書館一覽表를 編刊하여 왔다.

韓國圖書館界가 飛躍의인 發展을 할 것이라고 期待되는 1963年을 마지하여 좀더 科學的이고 具體的인 資料를 蒐集하여 이를 土臺로 해서 多角的인 面으로 分析한 韓國圖書館一覽을 編纂코자 한다.

編纂된 一覽은 各圖書館의 參考資料로서는 勿論이고 政府의 文化政策樹立과 國際間的 圖書館에 關한 情報交換資料로서 提供되어 圖書館의 實態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唯一한 資料가 될 것이다.

上述한 目的으로 技術委員會의 한 分科로서 發足하게 되었다.

2. 事業內容

諸統計의 資料가 되는 圖書館實態調查書와 圖書館人實態調查書의 調查書樣式을 作成하여 各圖書館에 資料의 提供을 依賴하고 提供된 調查書를 土臺로 圖書館의 實態를 多角的인 面에서 把握할 수 있도록 各種 統計 또는 其他資料를 編纂하여 1冊으로 發刊할 것이다.

3. 事業計劃

- 2月13日까지 調查書樣式 決定
- 2月20日까지 調查書樣式 印刷完了
- 2月27日까지 各圖書館에 調查依賴完了
- 3月31日까지 資料蒐集完了
- 4月17日까지 編輯完了
- 4月30日까지 印刷完了